

“조직 · 행정 혁신 앞장설 것”

군산시 부시장, ‘혁신적 조직 · 성과 체계 개선 방안’ 마련
개선안… 3대 목표 · 3대 전략과제 · 8대 세부과제로 구성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이 17일 브리핑을 통해 군산시의 ‘혁신적 조직 및 성과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 5월부터 운영되어온 ‘혁신적 조직 및 성과 체계 개선 방안’ 관계부서 팀을 통해 마련되었다.

관계부서는 조직과 성과 체계 개선 방안의 목표를 ‘역량을 키우는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정하고, BSC 성과관리 개선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및 협의, 혁신적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및 개선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마련된 ‘혁신적 조직 및 성과 체계 개선 방안’은 3대 목표, 3대 전략과제, 8대 세부과제로 나뉘며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이 17일 브리핑을 통해 군산시의 ‘혁신적 조직 및 성과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3대 목표는 △시장혁신 및 정

책기능 강화로 앞서나가는 조직 △직무맞춤형 인재 배치로 능력있고 일 잘하는 조직 △관행을 깨는 소통과 공감의 신바람 나는 조직으로 정했다.

이를 위한 3대 추진 전략은 △정책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선도하는 조직 구성 △꼭 필요한 인재가 필요한 곳에 배치되는 적소적재 및 성과관리 △협력과 포용의 따뜻한 조직 문화로 선정, 한발 앞선 정책 개발 및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적소적재의 인사개선을 통한 조직 및 행정혁신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신 부시장은 “최근 5년간 신규직원의 유입이 높아, 그간의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유연한 조직으로의 변화 요구가 높았다.”라면서 “혁신적 개선안을 통해 한발 앞선 정책 개발 및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적소적재의 인사개선을 통한 조직 및 행정혁신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장, 고향사랑기부 릴레이 동참

“서로의 지역도 살리고 · 자매도시 간 우애 다지는 계기”

강임준 군산시장이 17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를 응원하는 행사에 동참했다.

이 행사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고향사랑기부를 한 후, 다음 기부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참여한 강임준 군산시장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지명을 받았으며, 다음 주자로 김창규 제천시장을 지목했다.

군산시를 도전 주자로 지목한 대구 동구는 2000년도에 군산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이고, 군산시 다음 주자인 제천시는 군산시와 2009년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도전을 통



해 서로의 지역도 살리고, 자매도시 간 우호를 다지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국립군산대, 서울대와 ‘해양수산의 밤’

‘해양기후변화 대응 · 해상풍력 지역 상생’ 주제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는 최근, 서울대학교 블루카본 사업단과 공동으로 ‘제7회 해양수산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해양기후변화 대응 및 해상풍력 지역 상생’을 주제로 열렸으며, 우리나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과 탄소 저감을 통해 지구 열대화를 완화하려는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탄소 저감의 핵심 축인 블루카본과 패류 양식의 중요성을 논의하며, 어민, 연구자,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는 국립군산대학교 해상풍력 수산업연구단, 새만금환경연구센터, 서울대학교 블루카본 사업단이 공동 주관했으며,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부안군 수산과 등 지역 행정기관과 어업인을 포함해 약 13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기후 위기 시대에 효율적인 탄소중립 실현과 이를 기반으로 한 어촌 지역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 및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장호 국립군산대학교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대학은 서해안 유일의 해양수산 단과대학을 갖춘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양 및 수산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며,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국립대학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박승준



과장 또한 축사를 통해 “해양수산업이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립군산대학교 해상풍력수산업연구단 박경일 단장이 ‘지구 열대화와 뉴노멀 시대: 고에너지 해역에서 수산양식의 필요성’을 주제로 서해안이 해수온 급변 시대의 새로운 수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신기술 개발과 정부 정책 개발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대학교 블루카본 사업단 김종성 단장은 ‘아쿠아포닉스: 블루푸드 산업의 뉴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양식장이나 농장에서 벗어나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수산물과 식물을 생산 · 판매하는 친환경적 양식 기술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해양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와 협력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어촌 및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대학이 지역 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는 중추적 기관임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 다이로움 취업박람회’ 성황리 마무리

취업 예정자 150여명 참석… 한석준 아나운서 특강 · 금융교육 · 기업 현장면접 등 ‘큰 호응’

익산 청년시청에서 열린 다이로움 취업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익산시는 17일 열린 취업박람회에 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 학생과 청년 등 15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한 해 동안 취업과 진로 준비에 힘써온 청년들에게 성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명사초청 특강, 금융교육, 현장면접,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명사초청 특강은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사로 나서 ‘성장과 행복, 두 가지를 추구하는 삶’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29년 차 아나운서로서 자신의 경험을

비방으로 삶의 균형과 목표 설정에 대한 조언을 전달하며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금융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재무 목표 설정과 신용 관리 방법 등 사회초년생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어 5개 기업 인사담당자가 참여한 현장면접에서는 채용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구직자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기업의 1:1 면접이 이어지며 성황을 이뤘다. 시는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한 참여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한 청년은 “취

업준비로 지치던 시기에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고 전했다.

익산시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익산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도전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 다이로움 취업박람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2,000여 명이 참여해 150여 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의 대표적인 구인구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내년에는 청년시청을 중심으로 청년의 취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 보급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 폐양액 배출 감소… 환경오염 줄여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이하 센터)가 화학비료와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에 기여하는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을 관내 농가에 보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술은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의 화학비료와 농업용수 사용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폐양액 배출을 감소해 환경 보전이 가능하도록 양액을 재활

용하는 기술이다.

순환식 수경재배는 작물 재배 중에 배출되는 배액을 회수하여 여과, 살균 후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비순환식 재배에 비해 화학비료와 농업용수 사용량을 20~40%가량 절감하여 농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양액을 살균, 여과를 통해 재사용한다는 점에서 △농가 화학비료 사

용 감소 △환경오염 방지의 장점이 있다. 여기에 화학비료 원자재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까지 줄여 탄소 중립 정책에도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해당 농가는 12월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에 필요한 살균, 여과 장치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다.

농가에서는 이를 통해 정기적인 배액 양분 보정 처방과 병원균 정밀 분석을 통한 양액 재활용 기술의 안정성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